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26. 하나님 찬양의 노래

2013. 06. 3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계시록 4장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4:8~11]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 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생물들이 찬양하는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시간이 다 갔습니다. 거룩하다는 찬양을 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워하십니까?

답: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지요. 그런데 그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다르다는 말이지요. 안 좋은 의미로 다른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 또 존경스러운 의미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첫째가 존재 문제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과 스스로 계시는 분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은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이지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분을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것은 이런 신앙고백이 담겨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찬양의 진정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 아, 거룩하다는 찬양에 그런 신앙적 신학적 의미가 있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 하시다고 할 때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거룩하다는 찬양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 예, 거룩하신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생물들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은 존재성에 대한 것인데 영원 자존자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나 자존자라는 말은 새삼스럽게 설

명할 필요는 없지요. 전능하심에는 자존성이 포함됩니다. 이 말은 1:8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같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 게 돌릴립니다.

3. 생물들의 찬양을 듣고 24장로들이 화창을 하네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 광경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답: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말씀을 읽고 이야기 합시다. 10절 11절입니다.

[계4:10,11]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생물들의 찬양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과 동일한 사상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완전한 굴복을 뜻하는 자세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자주 표현한 말입니다. 완전히 굴복하는 것인데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집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며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부른 칭호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우리 주 황제시여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 황제에 의하여 유배가 있지만 거기서 계시중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그 칭호를 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의 찬양과 같은 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화답합니다. 생물들은 자존성을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화답하면서 창조하신 사실을 찬양합니다. 자존성과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배 받으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신 이유이고 증거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조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첫째 이유가 그분이 자존자이시며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4장은 바로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시며 자존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썼으니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존하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답: 참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이군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계시다고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계시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잘못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봅시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무슨 관계가 됩니까?(부부가 되지요.) 그런데 그 부부가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자녀를 낳으면 증명이 되지요.) 그렇지요. 부부가 되었어도 자녀를 낳지 않으면 결코 부모라는 증명은 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여호

와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지요.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창조로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계시기만 하고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그분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창조는 성경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롬1:20을 읽어봅시다.

[롬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목사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고 계시하셨지요. 창조는 성경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계시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5. 말씀을 들으니 확실하네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렇게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성경은 기이한 책입니다. 이제는 5장을 공부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만?

답: 4장이 끝났으니 당연히 5장을 공부해야지요. 그러면 5장을 읽은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1~8까지만 읽도록 하지요. 다음 구절은 그 구절 설명할 때 읽고요. 읽어보세요.

[계5:1~8]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4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장면은 4장의 연속이지요.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지요. 그분의 오른 손바닥에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기록한 책인가 하는 것은 어린양이 책을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음 말을 봅시다. 2~4절은 별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요. 보좌의 앉으신 분의 오른 손에 인봉한 책의 그 인을 떼고 읽기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는가하고 천사가 물었는데, 요한이 보니 우주를 통틀어 그것을 읽을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하는 힘 있는 천사가 누구냐, 그 책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석가들이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두루마리 책의 봉인을 떼고 그 책을 읽을 존재가 우주 안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울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라는 표현은 우주 전체를 뜻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는 이 책의 봉인을

때고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책, 엄히 봉인된 책, 어떤 내용이기에 그럴까 계시를 보는 요한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은 열망이 이렇게 큰 소리 내어 울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몰라도 불편하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잘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파선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요한처럼 기록된 말씀을 알고자하여 크게 우는 열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6. 그러나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요. 읽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24장으로 중대한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울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책과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미 네 생물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유대지파에 속한 것발이 사자였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신데 사자로 상징화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빌 때 그를 사자새끼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창49:9,10). 이 약속은 승리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칭호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이지요. 다윗의 뿌리라는 칭호는 사11:1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악을 징계하고 평화로운 이상 국가를 이루시며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언되었습니다(사11:1-10). 이 메시아 칭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더욱이 뿌리라는 말은 예수께서 비록 다윗의 법적 족보적 예언적 계통으로 오셨으나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니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겼습니다.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이겼다는 말 앞에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7. 무엇을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냥 이겼다고 하고, 이겼기 때문에 책과 인을 떼실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이겼는지, 그것을 이긴 것과 책을 펴고 봉인을 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네요.

답: 잘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이겼다고 하면 죄와 사망을 이긴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표상하는 사자와 왕을 표상하는 다윗의 뿌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봉인한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기신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암시도 내포된 것입니다.

8. 예, 그렇군요.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지요. 이제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셨네요.

답: 예, 이제 읽어봅시다.

[계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께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서 계시는 모습도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지요.(행7:56) 또 계시록 1장에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도 서서 다니시는 인상이고요, 여기에도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서신 것은 봉사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봉인을 떼시는 것도 성소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서 계시는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봉사의 위치를 암시하는데 즉 중보의 위치에 서 계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5절에서는 사자라고 하고 6절에서는 어린양이라고 합니다. 사자와 어린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칭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자이시기도 하고 어린양이시기도 합니다. 사자는 왕인데, 어린양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표현했습니다.

9. 그렇게 대조되는 두 짐승으로 표상하여 보여주신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표현한 곳이 여러 곳이지요?

답: 예, 계시록에 어린양이라는 표현이 아마도 원어로는 27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25회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은 대명사인데 개역에서는 다 어린양이라고 번역했네요. “아르니온”은 아주 어린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희생 제물로 쓰기에 가장 알맞은 양을 가리키는 낱말이라고 하는군요. 개역 신약성경에는 어린양이라는 말이 33번 나는데, 계시록 외에 6번 있습니다. 5번이 암노스를 썼습니다. 요한이 이런 단어를 구별하여 쓴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르니온은 아주 어린양인데, 죽임을 당하신 것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1:29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했을 때는 암노를 썼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소개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을 어린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따르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양은 속죄를 위하여 희생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말과 이기셨다는 말은 의미상으로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이기신 것이지요. 골 2:14,15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골2:14,15]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계시하셨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말과 이기셨다는 말이 같

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 그러네요.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신 것 같은데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니까 참 인간의 논리나 사고방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사실에 의하여 중보의 위치에 서시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봉인을 떼시려고 하시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입니다. “뿔” 성경에서 힘, 권세를 상징하며, 구약에서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상징할 때에는 국권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은 완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린양이 가지고 있는 “일곱 뿔”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무결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양의 죽음이 이런 권세를 가지도록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곱 눈”은 성령을 상징한다(1:4; 4:5).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데(속3:9; 4:10)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오순절에 예수께서 성령을 세상의 교회를 치리하도록 보낸 사실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봉사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보혜사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봉사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지요.

11. 감사합니다.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은총을 꼭 누리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계시록을 통하여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로 구원의 기쁨을 얻었사오니 이 놀라운 생명으로 그날까지 잘 지키며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나라에 꼭 가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